

### 세계 불교학자들의 학문 태도 비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3차 세미나 개최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 세불연)는 3월 12일 오후 1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다향관세미나실에서 '세계 불교학자들의 학문과 방법: 비교와 조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3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계불교학연구소가 개소 이후 세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 대표적인 인문학자 및 불교학자들의 학문태도와 연구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다.

고영섭 교수가 '영호당 박헌영과 상현 이능화의 학문과 방법'에 대해, 일본 도쿄대 박사학위를 받은 정유식 동국대 강사가 '하다니 료타이(羽狹了)와 후카우라 세이분(深浦正文)'에 대해 살

펴본다. 스리랑카 켈라니아대 박사 김한상 동국대 세불연 연구교수는 '말라라 세케라와 자야 틸라케' 이병욱 고려대 철학과 외래교수가 '에드워드 콘츠와 램버트 슈미트하우젠' 문진건 동국대 불교대학원 명상상담심리학과 초빙교수는 '노딜 로페즈와 루이스 고메즈'의 학문과 방법에 대해 각각 고찰한다.

또 황승일 동국대 교수, 김종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배경아 동국대 세불연 교수, 최경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외래교수, 고승학 능인불교대학원 불교학과 교수 등이 논평자로 참석해 불교학의 보편적인 문법과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노덕현 기자

### 불교 교학과 응용 방법을 논하다

불교학연구회, 12일 동국대 총무로영상센터서

불교 교학과 응용 방법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충남)는 3월 12일 오후 1시 동국대 총무로영상센터 227호에서 2016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의 교학과 응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조윤경(서강대)의 '삼론종의 이원적 범주 연구' △박오수(동국대)의 '화엄발보리심장

의 고찰' △곽희(동국대)의 '신라 화엄 신앙의 확정과 오대산 문수신앙' △이경하 (능인대학원대학교)의 '유식학과 분석심리학의 마음구조에 따른 심층심리치료연구'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남수영(동국대), 김영진(동국대 경주캠퍼), 박보람(동국대), 박서연(동국대), 오인 스님(중앙승가대), 박광연(동국대), 안환기(서울대), 정은혜(성균관대) 등이 참가한다. 신청민 기자

노덕현 기자

### 한국미술사학, '불화와 산수화' 강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3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불화와 산수화' 미술사 강좌를 연다.

총 12강이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 고연희 서울대 규장각 교수, 박은순 덕성여자대 교수, 신은미 한

국미사박물관 관장, 김현권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 정병모 경주대 교수, 유미나 원광대 교수, 유경희 국립박물관 학예사 등이 강사로 나서 불화의 의미와 성격, 불화속 산수화 답사 등 다채로운 강의를 진행한다. 수강신청은 3월 21일까지다. (02)3673-3426

노덕현 기자

### 한국선학회, <한국선학> 43집 원고모집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는 <한국선학> 43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 주제는 선불교 관련 수행, 사상, 역사, 문학, 어학, 문화예술 등이며 원고 마감은 3월 15일까지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120매 사이로 120매를 초과하면 소정의 초고게재료가 부과된다.

작성 및 투고요령은 한국선학회 홈페이지(www.seonstudy.org)의 논문투고 안내 규정을 참조하면 된다. 제출은 한국선학회 JAMS 홈페이지(seonstudy.jams.or.kr)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한국선학>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이번 43호는 4월 30일 발간 예정이다. (010)7476-3416

이지(www.seonstudy.org)의 논문투고 안내 규정을 참조하면 된다. 제출은 한국선학회 JAMS 홈페이지(seonstudy.jams.or.kr)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한국선학>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이번 43호는 4월 30일 발간 예정이다. (010)7476-3416

노덕현 기자

## “불교건축보면 불교의식 변화 알 수 있어”

<불교문예연구> 6집서 불교건축 고찰 논문 눈길

건축가 르꼬르부제는 '건축은 생활을 담은 그릇'이라고 했다. 불교건축물은 불교의 생활과 그 속의 의식이 반영된 특별한 종교건축물이다. 이런 불교건축물과 불교의례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대거 발표돼 눈길을 끈다.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연구회(소장 차차석)가 2월 펴낸 <불교문예연구> 6집에서는 '불교의례와 공간미학'을 주제로 김봉건 최진업 정명희 구미래 등 6명의 학자들의 관련 논문이 실렸다.

먼저 김봉건 서울대 객원교수는 '불교의례와 건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17세기 이후 불교의례는 대부분 실내화로 변하게 된다"며 "그 결과 불단의 위치, 기둥구조, 바닥재료, 천장구성 방식이 변화하고, 창호의 개방성이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불교의례는 실내에서 진행되게 됐을까. 김 교수는 "조선이 건국되며, 국가행사로 야외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던 불교의례가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는 정도로 위축되고, 결국 불전 내부서 행해지는 간략한 의례 위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한 불화가 불안했다"며 "수륙제가 삼단의 의례로 저변화했고, 상중하의 불단이 갖춰지고, 각단을 상징하는 불화가 기본조합으로 탄생한다"고 설명했다.

정 학예연구관은 "전각 외부의 의식에 쓰이는 괘불 외에 감로도가 전각 내부 불화로 바뀌었으며, 의식 전용 불화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최진업 한국불교사연구소 연구원은 해인사 상선원을 중심으로 선 수행과 선

복도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 불단이나 불상 등의 어떤 상징물이 없다는 점"이라며 "이는 수행공간을 평등의 공간으로 만들어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선원은 수행자의 공간이요, 진여가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건축이 우선된다"고 말했다.

구미래 동방문화대학원대 연구교수는 '탑돌이와 연등의 종교민속적 의미'를 통해 불탑신앙의 전통문화화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 연구교수는 "탑은 하늘과 우주와 땅의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의미를 지닌다"며 "특히 연등과 함께 어우러진 종교민속의 상징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구 연구교수는 "탑을 도는 것은 지신 밝기, 세절밝기, 성불기처럼 돌기와 밝기가 결합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이라며 "달, 탑, 돌기, 연등은 불교를 포함한 한국인의 종교적 정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 상징성에 대한 주목이 뒤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봉건 “의례 실내화로 건축도 변화해”

정명희 “의식 수요 다양해져 불화 발달”

최진업 “선원건축, 평등·수행정신 반영”

구미래 “불탑건축, 하늘예경사상도 포함”

'조선시대 불화와 의례공간'을 통해 이런 주장에 대해 조선시대 오히려 건물 내에서의 다양한 의례가 발달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정 학예연구관은 "조선시대 예배공간이던 주불전이 다양한 범화와 의례가 개최되는 공간으로 변모했고, 그로 인해 전각 내부의 의식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

원건축의 관계를 고찰했다. 최근 명상센터와 템플스테이 관련 건축이 유행하지만 불교건축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최 연구원은 '선원건축의 공간미학'에서 "해인사 상선원, 남양주 화개선원, 불암사 선원 등은 공통점이 있다. 백담건축이라 불릴 정도로 단청이 생략되고, 건물 사면이 문과 창호,

### 문화재지킴이 연합 단체 출범

신라문화원 등 34개 단체 모여... 2월 29일 기념식

신라문화원 등 불교계 문화재 단체들이 참가하는 문화재지킴이 연합 단체가 출범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설립 허가한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조상열)의 출범식이 2월 29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연합회 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참여해 단체 대표들을 격려했다.

대전에 새롭게 동지를 둔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는 전국 34개 문화재지킴이 단체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으로, 문화유산 보존·교육·홍보 등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됐다.

주요 참여 불교계 단체로는 신라문화원을 비롯해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 있다. 회장은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이사장이, 부회장은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연복흠 충북문화유산지킴이 대표, 김호태 안동



신라문화원 등 문화재지킴이 단체들의 연합 단체인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가 대전 서구 사무소에서 2월 29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화재지킴이 대표가 맡는다.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는 "문화재지킴이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통해 문화재를 최일선에서 지키는 데 매진하기로 뜻을 한데 뭉치고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를 발족했다"면서 "이번 출범식을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가치 확산이라는 소명의식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 문화재지킴이 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문화유산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민 기자

### 부산 最古 목조건축물 보물 됐다

문화재청, 2일 '운수사 대웅전' 보물 승격 지정

부산 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목조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부산 운수사 대웅전'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1호 '부산 운수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96호로 지정했다"고 3월 2일 밝혔다.

부산 운수사 대웅전은 2013년 전면 해체 수리 당시 종도리(宗道里)에서 발견된 2개의 묵서명(墨書銘)에 의해 1647년 공사를 시작해서 1655년 완공됐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운수사 대웅전은 부산 지역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임을 알게 됐다.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단아한 중심포(柱心包)에 맞배지붕 건물로, 우주(隅柱)의 하부에는 기둥 높이의 1/2 정도까지 원형 돌기둥을 세워 목재 기둥을 받고 있다. 이는 범어사 대웅전, 범어사 일주문 등 부산 동래지역 건축물에서 다수 확인돼, 내륙지방에 비해 태풍이 잦고 비가 많은 데 따른 지역적 특



보물 제1896호로 승격 지정된 부산 운수사 대웅전 전경.

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건물의 시대성을 볼 수 있는 공포는 배면이 정면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다. 배면 공포의 소박한 살미와 결구방법은 조선 중기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양산 신흥사 대광전, 부산 범어사 대웅전과 동일한 형식이다.

문화재청은 "운수사 대웅전은 조선 중기 이후 불전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흔치 않은 귀중한 불교 문화유산으로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크다"면서 "운수사 대웅전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민 기자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 설치가격 : 2,250,000원
- 대출력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 250W
  - 350W
  -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 285,000원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앰프 구성 : 스테레오 앰프 300와트 1대, 소형 믹서 5채널 1대, 믹싱형 구조네마이크 1대, 사치저음 마이크 스텐드 1대, CD기

◆ 특징 : 최급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YD-675 핸드 마이크 1대,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세트, 최급급 앰프케이스 1대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자,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 (2개월)      ■ 승주 : 도량식, 중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나. 중급과정 (4개월)      ■ 관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관공, 각단공공, 요령, 목탁
  - 다. 고급과정 (6개월)      ■ 시련, 삼신이운(매복이운), 대령, 관옥, 옹호계 (신중적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불송편
  - 라. 강 주 : 석범은 스님
- 개강** ■ 2016년 4월 7일 목요일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입학자격** : 중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 경쟁시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9길 28(북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974-2605      FAX 054)974-2705

###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